targeted sanctions 관련 데이터를 새로 모아서.. social capital이 제재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targeted sanctions인지 아닌지 따라 conditional effect를 보는거.. 앞에 북한 얘기에서 사치품제재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드는 생각. 우리 결과에서 rally effects가 dominant한데 이게 targeted sanctions의 경우 효과가 줄어들거라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target leader 근처의 엘리트만 제재하니까... 반면 comprehenstive sanctions의 경우 social captial 사용해서 조직적으로 제재 효과를 반감시키는 rally effects가 더 잘 작용할 수 있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conditional effect가 우리 예상대로 나오면 젤 좋고 그게 아니라도 우리 결과만 robust하면 되니까.

Social capital이 제재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제재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target population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고려되는 거지..

서론에 쓴 타겟제재에서 개성공단 제재(comprehesive)로 제재 대상 범위가 넓어졌는데.. 성공 가능성이 반드시 올라가는게 아니다.. social captial에 의해 rally effects가 강하면..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 뭐 이런 스토리가 가능하잖아

외부와의 정보의 차단가능성도 변수로 넣으면 좋겠어.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급수도 데이터가 다 있어..

rally effects가 가장 커지는 조건은.. social capital이 높은데 외부와의 정보가 차단된 독재,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comprehensive sanctions

타겟제재 데이터와 외부와의 정보 데이터. 그리고 V-dem과도 합쳐서 타겟의 레짐 정보도 좀 보강을 하자.

외부와의 정보데이터는 인터넷도 좋지만.. 얼마나 많은 국가들과 무역을 하는지도 좋은 변수일 수 있어.. 많은 국가들과 무역을 하는 경우 외부정보에 노출되는 걸 막을 순 없을테니